

제2부 개인적 준비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기도에서 능력을 얻게 하고 잃은 자들에게 증거할 때 선한 결과를 얻게 함.

I. 성경은 우리 개인의 삶의 양식에 따라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여부가 결정된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A.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한 생활양식을 보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일3:22

1. 여기서 “지킨다”와 “행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계속적인 의미의 현재 시제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뜻한다.
2.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일을 어쩌다 가끔씩 하는 것이 아니다.

B. 요15:7에는 하나님이 이 약속된 기도능력을 채우실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두 개의 “조건”(IF)이 있다고 말한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만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리라”

1. 이 말씀은 신약에서 기도의 중보적인 능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약속이다.
2. 그러나 예수님은 만일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이 두 가지의 “조건”에 합한다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 a. “예수 안에 거하고”라는 말은 첫째, 구원을 통하여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주님으로부터 매일 부양과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 b.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의 모든 말씀을 따라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 (1) 예수께서 지상에서 하신 모든 말씀 (요14:25)
 - (2)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열어 보여 주신 구약 성경의 말씀 (눅24:27,45)
 - (3)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기록한 그의 말씀 (요14:25-26)
 - (4)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요한에게 지시하신 말씀 (계2,3장)
3. 이것은 모든 성경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순종하여야 하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으로 여기게 한다.

II. 기도와 증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요구들은 무엇인가?

A. 우리는 반드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1. 요15:7에서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2. 신약의 약속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중보기도로부터 결과된 능력에 대한 약속은 없다.
3. “예수의 이름으로”(요16:24) 기도하는 신약시대의 특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졌다.

마음 점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라. 만약 알지 못한다면, 제6부, 28, 29쪽에 있는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라.

B. 기도 생활에는 결코 알면서도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는 안된다.

1. (성경에 기록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은 야고보서 4:17에 따라 다 죄이다.
2.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하나의 '죄'와 여러 '죄들'
 - a. 하나의 죄는 모두가 태어나면서 갖게 된 죄의 상태이다 (요3:18과 롬5:18)
 - (1) 예수님께 있어서 "세상"은 언제나 그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성령)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16:8-9

- (2)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선포하셨다. (막1:15)

마음 점검: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자신이 그를 믿었다는 것과 또한 개인의 죄를 회개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

b. 복수의 '죄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행한 죄들이다.

- (1) 예수님은 마태복음 6:9-12에 나타난 기도의 모범에서 제자들에게(만)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허물"(trespasses)과 "죄"(debts)는 죄들(sins)을 뜻한다.]
- (2) 사도 요한은 기독교인들에게만 보내는 요일1:9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 (3) 베드로도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벰전3:12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기독교인들)을 향하시느니라"
- (4) 요일3:22에는 "불순종"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치 않는 것"을 죄라 한다.
- (5) 신후정역 약5:16하의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는 의로운 사람의 기도이다.
- (6)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승천하신 후 주님께서 그의 기독교회(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보라. (또한 대하7:14, 시66:18, 시51:10-13, 시24:3-5을 보라)
- (7) 그리스도의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흥은 소수의 신자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일어났다. (대하7:14, 벰전4:17)

마음 점검: 이 부분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때 이러한 요구들을 포함시키라.

C.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만 한다.

1.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한 가지 조건을 놓으셨는데, 곧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6:12

2. 주기도문 직후에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기독교인들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행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이셨다. (마6:14-15). (이것은 비기독교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용서받은 것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3. 예수께서는 막11:24에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을 "그리고"라는 말로 11:25과 연결시키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4.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저지른 죄는 (비록 고백했다 하더라도)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 점검: 반드시, 나에게 잘못된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용서할 것을 결심하라.

D.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1.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우리는 그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히11:6
2.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기도자의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마음 점검: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참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라.

E.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1. 종종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지에 대하여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실 때,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2.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겔세마네 동산에서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다. 눅22:42
3.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뜻)은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
 - a.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이상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 b. 여기에는 우리의 개인생활에서 또한 기도의 요구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이 포함된다.
 - c.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물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벰후3:9에서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마음 점검: 나의 생활이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없게 하라.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말기라.

F. 매일 기도생활을 지속해야 한다.

1.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들리기 위해서 하지 말고 각자가 개인의 처소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 마6:5-6
2. 이렇게 깊고 친밀한 기도 중에서 우리가(는)
 - a.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약4:8)
 - b.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 (요일1:8-9)
 - c.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미한다. (시100)
 - d.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 (엡4:32)
 - e.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전5:1-2)
 - f.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마6:10)
 - g. 사단에 대하여 승리를 거둔다. (엡6:12-13)
 - h. 하나님과 상호간의 사랑을 나눈다. (막12:13)
 - i. 우리의 삶과 사역에 능력을 힘입는다. (행1:8)
 - j. 매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한다. (엡6:8)

3. 우리의 작은 모임이나 그룹, 기도사슬과 같은 공중기도의 힘은 우리 개인의 기도생활의 질과 양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 (대하7:14)

마음 점검: 매일의 기도생활을 철저히 지킬 것과 그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라.

G.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1. 우리의 기도는 매일 기도콜방을 나설 때 “하나님, 내일 다시 뵙지요”라고 말하면서 문을 쾅 닫아 버리는 것이 아니다.
2. 그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를 열어 놓는 것이며, 잠 못 이루는 밤 시간에는 기꺼이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다. (살전5:17, 눅18:1)
3. 성령은 우리가 잃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비례하여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다.

마음 점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소원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도록 기도하라.

H.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1. 약4:3은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이기적인 동기에서 구하면 받지 못한다고 말씀한다.
2. 우리가 잃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만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지, 우리의 개인적 성취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마음 점검: 최근의 나의 기도--잃은 자들을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의 동기를 살펴보라.

I.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

1.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혼을 얻고자 하는 것은 사단의 왕국에서 포로들을 구출해 오는 일이기 때문에 (골 1:13), 우리는 반드시 먼저 사단의 간교한 전략을 깨닫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 후에 능동적으로 그를 대적해야 한다. (약4:7)
2. 우리는 사단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빌2:9-11, 골1:15-17)과 예수의 피(계12:9-11, 5:8-9)를 주장해야 한다. 이는 비록 우리 자신은 사단을 대항하여 싸울 능력이 없지만, 사단 역시 예수의 이름과 피의 능력을 대항하여 설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 점검: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훼방하려 할 때마다 능동적으로 대적하는 훈련을 하라.

III. 이 효과적인 선교 기도를 위한 개인적 준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 A. 하나님은 도움이 없이는 누구라도 이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신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루려고 시도하지 말라.
- B.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행하실 분이라고 약속하셨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2:13

1.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에서 이 모든 요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안다.
2.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적합하고 무능력하고 유약하다고 느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줄을 아는 것이다.

C.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키기도 하시며, 근심하시며 우리를 돕기 위하여 기다리신다.

D. 하늘 위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롬8:34, 히7:24-25)



당신이 할 일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잔존하고 있는 죄 혹은 고백하지 않은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다음 쪽에 나온 “죄 목록”을 조심스럽게, 기도하듯 읽으라.

이 부분에서 배운, 능력있는 기도를 위하여 개인에게 요구되는 성경적인 요구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 요구에 미흡된 것은 무엇이나 다 죄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직 고백하지 않은 다른 죄들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한 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자신을 위한 기도

1. 혼자 기도한다면, 목록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심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구체적인 죄를 기도로 고백하라.

2.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한다면, 약 4명 정도의 작은 그룹을 형성하라. 큰 소리로 함께 “아버지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후, 모두가 마치기까지 계속해서 용서받아야 할 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고백하라.

모두 함께 기도하는 것은 수줍어하는 사람이나 소심한 사람, 또는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용기를 갖게 하고, 정직할 수 있도록 멧멧한 마음을 준다. 그러나 당신의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기도자들이라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각자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라.

당신과 하나님만 알고 있어야 하는 죄를 크게 부르짖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죄의 경우에는 그냥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3.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죄 사함을 수용하라. 요일1:8-9

4. 다음 사항을 기억하라.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을 반드시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과거의 모든 죄를 알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조금씩 당신에게 보여주실 때, 추가적인 것들을 듣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



기도에서 죄 고백 전에 읽어야 할 성경상의 죄 목록

(각자의 문화에 맞추어 사용하라)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고백할 필요가 있는 죄이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약4:17

1. 살전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는 과연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않는가? 좋은 일 뿐만 아니라 나쁘게 보이는 일을 다 포함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식사시간의 감사기도도 거르고 있지는 않는가?
2. 엡3: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당신의 재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가? 열등감이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가?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렸는가?
3. 행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인이 되는 일에 성공하였는가? 그저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고, 잃은 자에게 입으로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진 않았는가?
4. 롬12:3 “**말하노니...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당신의 성공, 재능, 당신의 가족에 대하여 자랑하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을 당신 자신보다 더 낫게, 그리스도의 몸에서 당신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당신 자신의 권리를 고집하고 있는가? 기독교인으로서 당신은 아주 잘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을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지 않는가?
5. 엡4:31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불평하고, 흠잡고, 다투지 않는가?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다른 그룹의 기독교인들이 모든 일을 당신에게 직접 말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없을 때 그들에 대하여 악평을 하지 않는가? 자신, 타인, 혹은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를 갖고 있지 않는가?
6. 고전6: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하여 부주의하지 않는가? 먹는 일과 운동하는 습관에 있어서 성령의 전인 몸을 돌보지 않는 죄는 없는가? 불결한 성행위로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있지 않는가?
7. 엡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고, 음담을 하지는 않는가? 사람들이 당신 앞이나 당신 가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관용하고 있지 않는가?
8. 엡4:27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초월적 명상, 요가, 점성, 심령 예언, 마술 문학이나 영화 등에 마음을 열었다면 당신은 자신을 사단을 위한 “착륙 활주로”로 내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조언을 구하기보다 일일 운세표를 참고하지 않는가? 교회에서 비평, 잡담, 비협조 등을 함으로써 사단으로 하여금 당신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대의를 훼방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9. 롬12: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빚진 것을 제 때에 갚는가? 금액 전체를 다 지불하는가? 돈을 지불해야 할 때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는가? 수입에 대한 세금 기록을 정직하게 기입하는가? 고용자로서 혹은 피고용인으로서, 어떤 종류이든지 압거래를 하고 있지 않는가?

10. 고전8:9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성경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당신은 넘어지지 않을 만큼 강하다 하더라도, 약한 기독교인들이 당신의 모범을 따르려다가 실패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는가?
11. 히10: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교회 출석에 있어서 불규칙하거나 돌발적이지 않는가? 대예배에만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속삭이거나 책을 보거나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는가? 기도회 모임에 꼭 참석하는가? 가정 예배를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12. 골3: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한 적은 없는가? 과장하여 말한 적은 없는가? “별것 아닌 하얀 거짓말”을 죄로 생각하는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사실 그대로를 말하기보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가?
13. 벧전2:11 **“사랑하는 자들아...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성에 대하여 탐욕스런 눈으로 보는 죄는 없는가? 마음이 온통 섹스 지향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 책, 잡지들이나 그 화보, 표지모델 등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하는 음란한 행위 곧 간음, 간통, 변태 성행위 등에 빠져 있지 않는가?
14. 요13: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에서 분파와 분당에 참여하는 죄를 범하진 않았는가? 어떤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기쁨을 보는 편은 아닌가? 당신의 교회에 속한 지체들만 사랑하고 다른 교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은근히 즐거워하지 않는가? 그들의 성공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는가?
15. 골3:13 **“누가 너희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떤 사람이 당신을 비방하거나 당신에게 해로운 행위를 했을 때, 그를 용서하였는가? 어떤 사람들을 마음에서 제거해 버리지 않았는가? 여전히 원한을 품고 있지 않는가?
16. 엡4:28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채 손으로 수고하여...”**
 당신이 받는 보수보다 적게 일하고 적은 시간 자리를 지킴으로써 고용주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는가? 고용된 사람들에게 부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가?
17. 엡5:16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잘라 먹지 않는가? 텔레비전의 잠동사나 프로그램이나 가치 없는 책을 보거나 괜한 여유를 부리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가?
18. 마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당신의 인생 목표가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닌가?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받은 수입에서 하나님의 몫을 착복한 적은 없는가?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가?
19. 마23:28 **“이와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마음으로 자신은 가짜 즉 진짜 신자인 체한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신자라는 명목하에 여전히 죄로 가득한 삶을 감추고 있지 않는가? 사회적 지위와 교회 및 공동체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기독교인을 가장하고 있진 않는가? 주일 설교 시간에는 경건한 척 웃지만 주중에는 자신의 죄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는가? 가정에서 위세부리는 사람은 아닌가?
20. 빌4:8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잡담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적 혹은 경쟁자에 대한 소문이나 편파적인 진실을 믿고 있지 않는가? 매일 성경읽기를 계속하는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 곧 선하고 참되며 정결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는가?